

설 연휴 끝나도 극장가는 뜨겁다... 2월도 신작영화 경쟁 치열

SF부터 미스터리까지 장르별 신작 개봉박두

예년보다 이른 설 연휴가 끝난 2월에도 극장가는 관객들의 고민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설 연휴 대목이 끝났지만 신작 영화들의 개봉이 잇따를 예정이기 때문이다.

다음달 초에도 '컨택트', '퍼스널 쇼퍼' 등 관객들의 다양한 호기심을 이끌어낼 장르 영화들이 줄줄이 개봉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발레리나', '레고 배트맨 무비' 등 어린이들의 눈길을 끌 애니메이션 들 역시 관객들을 맞는다.

◇SF, 미스터리 등 장르별 신작들 개봉 대기

영화 '컨택트'는 다음달 2일 개봉할 예정이어서 SF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 전 세계에 날아온 12개의 웰 모양 UFO와 접촉해 그들이 지구에 온 이유를 밝혀야 하는 언어학자 루이스와 물리학자 이안의 이야기를 다룬 SF 영화다.

드니 빌뇌브 감독의 섬세한 연출로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감독상을 비롯해 8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됐다.

원제가 '어라이벌(Arrival)'이었다가 수입하면서 '컨택트(Contact)'로 바뀐 이 영화는 극찬을 받고 있는 SF 작가 테드 창 감독의 단편소설 '당신 인생의 이야기'가 원작이다. 원작소설이 언어의 본질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영화는 감성이 한결 더 붙여진 듯하다. 미지의 세계와 소통하는 설렘을 표현하는 에이미 아담스의 연기도 돋보인다.

그런가 하면 칸영화제가 주목한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도 개봉을 앞두고 있다. 프랑스 감독 올리비에 아사야스 감독이 연

출해 칸영화제 감독상을 받은 '퍼스널 쇼퍼'로, 다음달 9일 개봉한다.

영혼과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퍼스널 쇼퍼 '모린'이 의문의 존재에게서 문자메시지를 받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내용이다. 불안한 현대인의 심리와 욕망을 그리면서 심리적인 긴장감을 한껏 높인다.

칸영화제 수상으로 명성을 얻어 한껏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결말과 반전이 보여 주는 구성과 전개는 다소 상반된 반응을

'컨택트'·'퍼스널 쇼퍼' 등 흥행 기대작 줄줄이 개봉

'발레리나' 등 애니메이션도 출격... 화려한 영상미 선배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관객의 가슴을 적실 감성드라마도 연휴 직후 선보인다. 다섯 살에 길을 잃고 인도에서 호주로 입양된 '사투'가 구름어스로 25년 만에 집을 찾아가는 실화를 그린 '라이언'으로 다음달 1일 개봉한다.

실존인물과 배우의 높은 싱크로율로도 관심을 끈 이 영화 역시 작품상과 남우·여우조연상 등 6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국내 영화로는 '웰컴 투 동막골'을 연출한 박광현 감독의 신작 '조작된 도시'가 다음달 9일 개봉한다. 단 3분16초 만에 살인자로 조작된 남자가 게임 멤버들과 함께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면서 반격을 펼

치는 범죄액션영화다. 지창욱, 심은경, 안재홍 등 젊은 배우들의 개성 연기가 주목된다.

이 밖에 빈 디젤의 액션 블록버스터 시리즈물 '트립플 엑스 리턴즈'(8일 개봉), 에드워드 조지프 스노든의 실화를 그린 영화 '스노든'(9일 개봉) 등도 다음달 초 개봉한다.



◇'발레리나' vs '레고 배트맨 무비'... 애니메이션도 격돌

설 연휴 뒤로 개봉을 미뤘지만 어린이를 포함해 어른들까지도 관심을 끌 만한 애니메이션들도 출격을 대기하고 있다.

프랑스 애니메이션 '발레리나'는 다음달 9일 개봉한다. 발레리나를 꿈꾸는 소녀 펠리시가 고아원을 탈출해 오페라하우스 무대에 서기 위해 펼치는 모험을 그린 내용이다.

'드래곤 길들이기', '쿵푸팬더' 등의 제작진이 19세기 프랑스 파리의 모습을 재현했고 엘르 페낭, 데인 드한 등 할리우드에서 주목받는 배우들이 목소리 연기를 했



다.

특히 구현하기 힘든 발레리나의 춤동작을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한 역동성과 함께 오페라하우스, 에펠탑 등이 보여주는 화려한 영상은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전형적인 스토리라 하더라도 볼거리들이 주는 만족감은 성인들에게도 어필할 만하다.

어린이들의 친구 레고와 DC코믹스의 대표 히어로 배트맨이 결합한 스텝모션 기법 애니메이션 '레고 배트맨 무비'도 같은 날 개봉한다. 레고 고담시를 지키는 배트맨의 활약을 그린 내용이다. 앞서 '레고 무비'로 애니메이션 영화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워너브러더스애니메이션그룹(WAG)의 세 번째 작품이다.

어린이뿐 아니라 성인 애호가들까지 두터운 팬을 확보하고 있는 레고와 배트맨 인 만큼 다양한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낼 지 주목된다.



디엔씨, 3월 22일 첫 내한

한국인 기타리스트 이진주가 멤버로 속한 미국 팝 밴드 '디엔씨(DNCE)'가 첫 내한공연한다.

공연주최사 라이브네이션코리아에 따르면 디엔씨는 오는 3월22일 서울 광장동 예스24 라이브홀에서 처음 한국 팬들을 만난다.

데뷔곡 '케이크 바이 디 오션'이 빌보드 싱글차트 '핫100'에서 9위에 오른 데 이어 지난해 발표한 데뷔 앨범도 큰 성공을 거두며 단숨에 주목 받았다.

2016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VMA)에서 '최고 신인상'을 받았고,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등 여러 굵직한 시상식에서도 신인상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세계 10대 소녀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누린 보이 밴드 '조나스 브라더스' 멤버였던 조 조나스를 중심으로 결성된 팝 록 밴드다.

리더 겸 보컬인 조나스와 이진주를 비롯해 베이스리스트 폴 휘플, 드러머 잭 로우리스로 구성됐다.

'케이크 바이 디 오션'은 미국 외 세계적으로도 인기를 누렸다.

영국, 독일, 아일랜드 등의 라디오 에어플레이 차트 1위를 차지했다.

시원하고 경쾌한 멜로디와 기타 리프에 조나스의 보컬이 더해진 이 곡은 여름을 대표하는 테마송으로 각광받으며 뮤직비디오 유튜브 조회 수가 2억3000만 건을 넘겼다.

임순례 감독 '리틀 포레스트' 본격 촬영

영화 '리틀 포레스트'(감독 임순례)가 본격 촬영에 들어갔다고 메가박스 밝혔다.

김태리·류준열·문소리·진기주가 출연하는 이번 작품은 최근 경상북도 한 마을에서 첫 촬영을 시작했다.

영화는 고단한 도시 생활에 지쳐 시골 고향 마을로 돌아온 '해원'이 자연 속에서 직접 식재료 농사를 짓고, 밥을 해 먹으며 상처를 치유해가는 과정을 그린다.

김태리가 해원을, 류준열과 진기주가 각각 고향 친구 '재하'와 '은숙'을 연기한다.

문소리는 해원의 엄마를 맡는다.

임순례 감독은 "작은 영화이지만 사계절을 모두 담아야 하는 작품이다. 작년부터 준비해 올해 사계절 촬영을 한 뒤 내년까지 후반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3년 장기 프로젝트다. 겨울에 시작하는 첫 촬영이라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배우와 스태프가 불평 없이 열심히 해줘 힘이 난다"고 말했다.

'리틀 포레스트'는 일본 3대 만화상인 '네즈카 오사무 문화상' 후보에 오른 작가 이라가사 다이ске의 동명 만화가 원작이다. 일본에서는 모리 준이치 감독이 '리틀 포레스트: 여름과 가을'(2014) '리틀 포레스트: 겨울과 봄'(2015) 2부작으로 영화화했다.

2017년을 맞는 전북현대, 새로운 전술 도전

3-5-2 스리백... 팀에서 유일하게 더블스쿼드 유지되고 있는 포지션 양쪽 풀백

정유년을 맞는 전북현대가 새로운 전술인 스리백 도전에 나선다.

아시아챔피언에 등극한 전북현대에는 이번 이적시장 역시 수비수 영입에 집중하며 약점을 보완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선 전북은 울산과 3대2의 대형 트레이드를 단행하며 이종호, 최규백, 김창수를 보내고 국가대표에서 센터백과 풀백에서 각각 활약하는 이재성과 이용을 영입했다.

이어 호펜하이머에서 활약하던 풀백 김진수와 올림피아에서 활약하던 센터백 김민재를 영입하며 젊고 빠른 리그 최고의

수비진을 구축하게 됐다.

많은 영입이 있었지만 센터백 김형일이 중국 광저우헝다로 떠났고, 골키퍼 권순태는 일본 가시마앤티레프스의 이적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수비진의 교통정리는 자연스럽게 될 모양세를 갖추고 있다.

문제는 잉여이다. 현재 팀에 남은 잉여는 고무열 한명 뿐으로 에이스 윙어 레오나르도가 중동으로 이적했고, 한교원의 군입대와 로페즈의 부상에도 돌 다 전반기 출장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최강의 감독은 중앙미드필더인 이승기와 이재성 공격수 조석재 등을 측면에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결과를 장담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어 최 감독은 상황정리를 위해 3-5-2의 스리백 도전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전북은 지난해 12월 국제축구연맹 클럽월드컵에서 스리백을 구사한 적이 있다.

팀내에서 유일하게 더블스쿼드가 유지되고 있는 포지션이 양쪽 풀백이라는 점도 스리백 전환에 힘을 실는다.

과거엔 스리백 세 명을 모두 장신 수비수로 구성하는 팀이 많았지만, 최근엔

스리백 중 한두 자리를 측면 수비수나 미드필더 출신 등 전술적 옵션을 늘려줄 수 있는 선수로 채우는 팀이 많다.

전북도 지난 2015년부터 라이트백 최철순을 스리백에 포함시키는 경기가 자주 있었다.

최철순, 이용, 김진수, 박원재 중 3명 이상을 동시에 기용할 방법이 될 수 있다.

과연 스쿼드 불균형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전북이 성공적으로 스리백을 정착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감동받을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